

2025년 제4차 모니터링위원회 결과보고서

1. 목적: 복지관 참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질 향상

2. 사업내용

가. 일시: 2025. 12. 16.(화) 14:00~15:00

나. 장소: 프로그램실5-1

다. 참석자: 총 6명(박*홍 팀장, 김*현 사회복지사, 김*자 위원, 김*순 위원, 박*홍 위원, 박*권 위원)

라. 내용: 제3차 모니터링위원회 의견 및 조치사항 안내, 4분기 주요 사업 보고, 2026년 주요사업 계획 안내, 복지관에 대한 의견 제안

3. 제안 및 의견수렴

제안 및 의견내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자료에 외부 지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외에도, 이용자·보호자들의 일상과 밀접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보다 다양하게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그것이 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모니터링위원회 회의자료에 외부 지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외에도 상시 프로그램 운영 내용도 포함해, 복지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많았으면 좋겠음. - 현재 아이가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더 우선해서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음. 학교에서는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낌.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에 양해를 구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허락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학교가 늦게 끝나서 어렵다'는 이유는 부모로서 외당치 않음.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시간대에 상관없이 아이를 보낼 부모들이 많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자님의 고민과 바람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기는 사회성, 정서 발달,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학교 환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 청소년들에게 복지관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자녀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복지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보호자님의 의견은, 향후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과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공감하며, 기존의 운영 시간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복지관에서도 청소년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프로그

제안 및 의견내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에서는 솔직히 많이 힘들어하고, 장애 청소년들은 비장애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램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간대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보호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통대학을 2년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느낌.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과거 관리자와 면담시 자립을 위해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준비되는 어려움. 실제로 역대 오동통대학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간을 3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기관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람. - 만약 대기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면 이해하겠지만, 현재 정원도 다 차지 않은 상황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3년 과정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설정된 2년 과정이 현재 오동통대학 참여자들의 발달 속도와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이와 관련하여 내부 회의를 진행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 사진

